

‘2025 낙뢰연보’ 발간, 낙뢰 여름철에 집중되고 충남 많이 발생

- 지난 한 해 동안 약 10만 6천 회 관측, 여름철 57%, 충남 26% 발생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5 낙뢰연보’를 발간하였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km²)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간성, 백령도, 춘천, 파주, 대관령, 울릉도, 인천, 울진, 충주, 서해기지, 보령, 추풍령, 포항, 거창, 고창, 부산, 여수, 흑산도, 완도, 제주, 서귀포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0만 6천 회로, 최근 10년(2016~2025년)의 평균 횟수인 약 10만 5천 회보다는 1.3% 많고, 2024년(145,784회)에 비해서는 27% 적었다.

2025년 낙뢰 발생의 월별 특성을 살펴보면 낙뢰의 57%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6월(1,851회)과 8월(23,630회)에는 평균(6월 10,032회, 8월 31,767회)보다 적게 관측되었고, 5월(12,288회)과 9월(30,281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35,372회(약 33%)가 관측되었고, 특히 7월 17일은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강수와 함께 2025년 낙뢰의 약 21%(23,031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

2025년 낙뢰 발생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충청남도가 전체의 26%(28,165회)로 가장 많았고, 전북특별자치도 15%(15,714회)와 전라남도 12%(13,318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광역시가 382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낙뢰가 경상남도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것과 차이가 있었다. 해상

에서 발생한 낙뢰도 서해상(277,693회)에서 가장 많았는데(남해 145,539회, 동해 75,497회),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늦게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난기가 서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상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기불안정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 낙뢰연보’는 기상청 누리집(<https://www.kma.go.kr/kma>) ▶자료실 ▶기상간행물 ▶낙뢰연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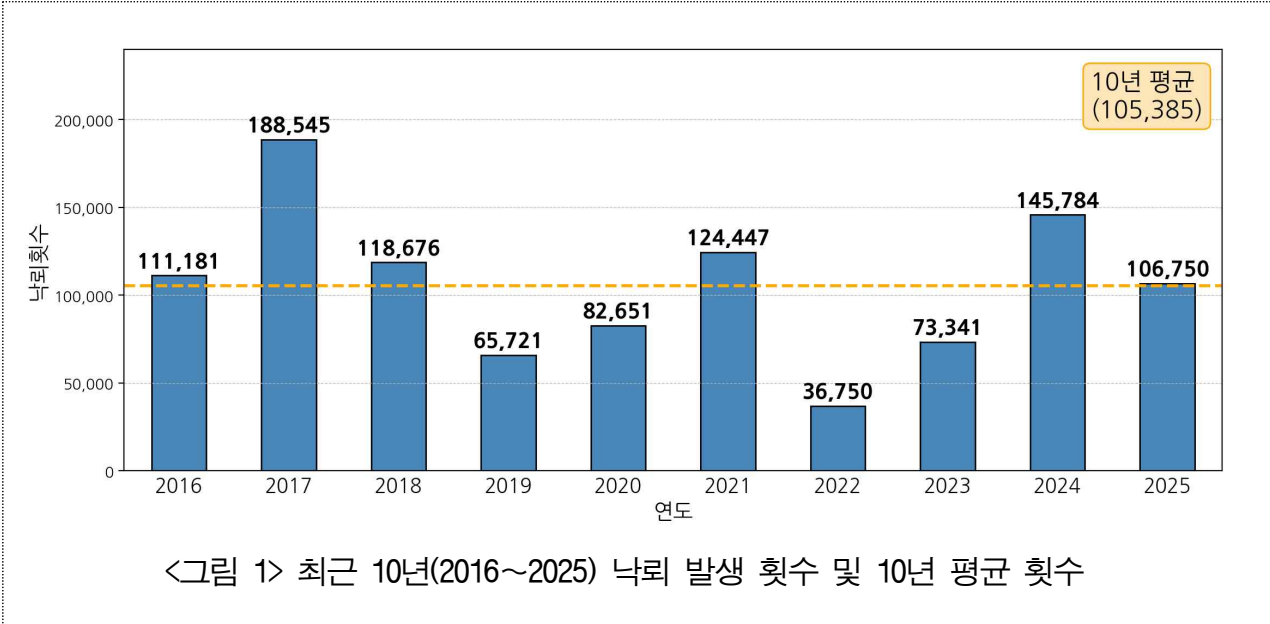
이미선 기상청장은 “낙뢰가 집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날씨알리미 등을 통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낙뢰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소 낙뢰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 낙뢰연보’ 발간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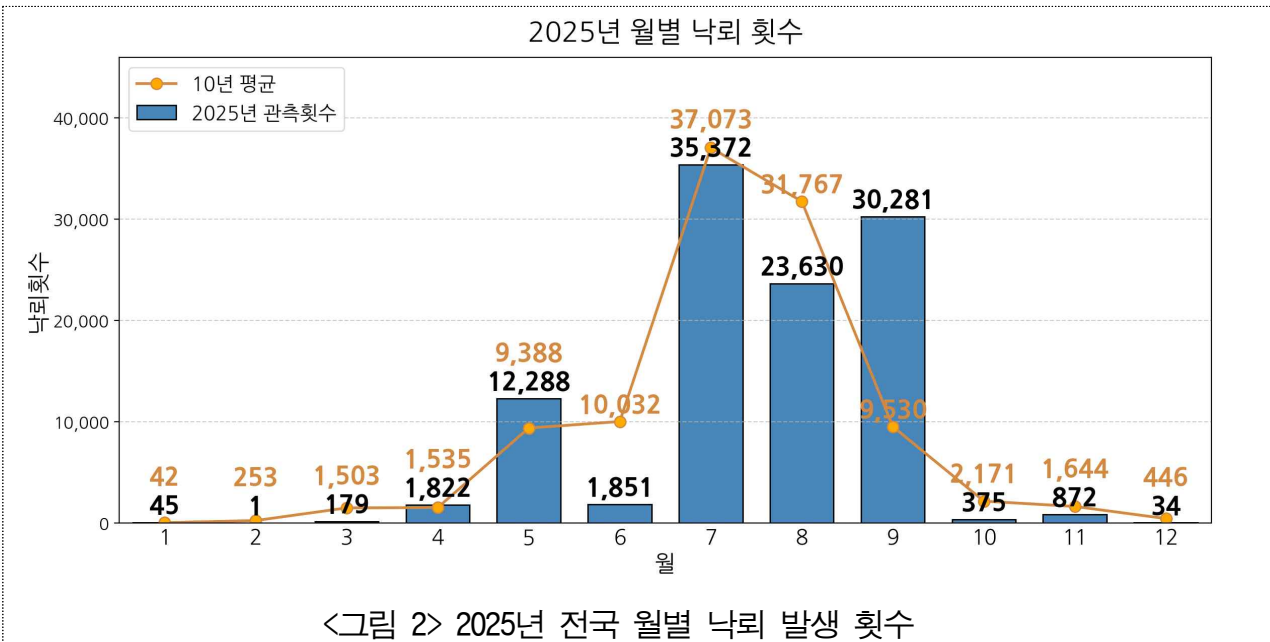
담당 부서	레이더분석과 레이더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정혜훈 (02-2181-0861)
		담당자	연구관	남경엽 (02-2181-0866)



□ 최근 10년간(2016~2025년) 연도별 낙뢰 발생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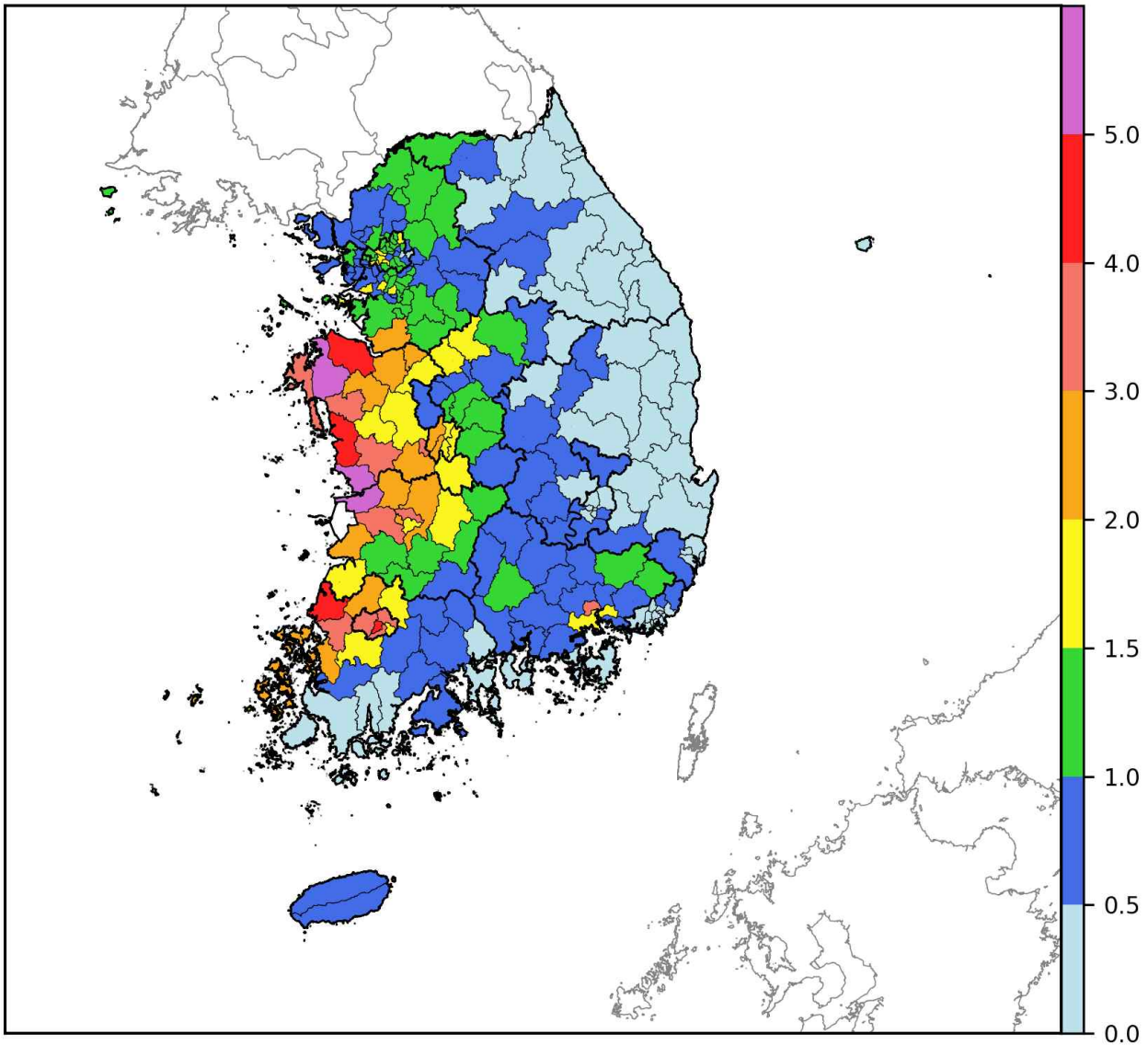
□ 2025년 전국 월별 낙뢰 발생 횟수



□ 2025년 시·군·구별 단위면적 당 낙뢰 발생 횟수 공간분포

LIGHTNING 2025

hits/km²



<그림 3> 2025년 시·군·구별 단위면적 당 낙뢰 발생 횟수 분포